R&R 25(2020) 241-268 https://doi.org/10.36365/kukirs.2020..25.241

죄의 허용(permission)과 하나님의 의지(will)에 대한 윌리엄 퍼킨스의 개혁신학적 변증

이성호
(고려신학대학원, 부교수, 역사신학)

Ⅰ. 서론
Ⅱ. 죄의 허용에 있어서 칼빈 신학의 몇 가지 특징
Ⅲ. 죄의 허용에 대한 퍼킨스의 견해
Ⅳ. 결론

[초록]

죄의 허용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하였던 존 칼빈과 달리, 16세기 후반의 가장 뛰어난 잉글랜드 개혁파 신학자였던 윌리엄 퍼킨스는 그 개념을 철저하게 옹호하였다. 퍼킨스는 죄의 허용이 개혁신학 안에 자리 잡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이와 같은 차이는 칼빈과 퍼킨스가 신학적으로 서로 상충한다는 인상을 우리에게 준다. 하지만 보다 상세하게 살피면 두 사람은 죄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전혀 차이점이 없다. 칼빈과 마찬가지로 퍼킨스는 죄의 허용이 하나님의 의지의 특별한 형태임을 강조하였을 뿐이다. 이를 위해서 퍼킨스는 세밀한 신학적 주석 작업을 하였으며 그 당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스콜라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비평적으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퍼킨스는 칼빈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이 주제를 치밀하게 다룬다. 제3의 의지, 비밀스런 의지와 나타난 의지, 특별한 의지와 일반의지와 같은 스콜라주의적 구분들을 사용하면서 퍼킨스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으로부터 제거하였다. 이와 같이 내용에 있어서 퍼킨스의 신학은 이전의 개혁파적 신학전통에 매우 충실하다. 퍼킨스의 이와 같은 개혁파적 변증방식은 이전의 종교개혁 세대와의 신학적 단절이 아니라 신학적 발전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키워드: 윌리엄 퍼킨스, 존 칼빈, 자유의지, 허용, 하나님의 작정, 섭리

논문투고일 2020.01.29. / 심사완료일 2020.03.04. / 게재확정일 2020.03.04.

Ⅰ. 서론

어거스틴 이래로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신학자들이 해결하려고 했던 가장 난해한 신학적 문제였으며, 그 중에서도 죄와 관련된 문제는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신학적 난제였다. 종교개혁 이후 이 문제는 칼빈주의자들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3단 논법으로 정리되었다. 1. 하나님의 작정은 세상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2. 인간이 죄를 범한다. 3.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도 작정하셨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논리는 알미니우스에 의해서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든다는 신랄한 비판을 받아야만 했다. 알미니우스는 이 어려움을 신적인 허용(*permissio*)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다.[1]

허용 역시 전통적인 신학적 난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었다. 허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책임을 제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인간 역사에서 일어난 심각한 일에 무관심한 방관자처럼 만들어 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칼빈은 죄의 허용이라는 개념을 강력하게 반대하였다.[2] 칼빈은 하나님께서 죄를 단지 혹은 마지못해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작정 혹은 의도하셨다고 단호하게 주장하였다. 이중예정론과 더불어 칼빈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 죄의 허용을 거부하는 것에서보다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없을 것이다.

칼빈의 예정론[3]은 일반적으로 개혁파 교회 안에서 점차 자리 잡았지만 그 세밀한 부분에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잉글랜드 청교도의 아버지라

---

* 본 논문은 고려신학대학원의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1 William den Boer, "'Cum delectu': Jacob Arminius's (1559-1609) Praise for and Critique of Calvin and His Theology," *Church History and Religious Culture* (2011), 76.

2 Nico Vorster, *Created in the Image of God: Understanding God's Relationship with Humanity* (Eugene: Pickwick Publication, 2011), 32. 칼빈은 『기독교 강요』는 물론 설교와 논문 등 여러 곳에서 허용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하였다.

3 통속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칼빈의 예정론은 전혀 새로운 교리가 아니라 어거스틴은 물론 토마스 아퀴나스의 전통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Joel R. Beeke, "Calvin on Sovereignty, Providence, and Predestination," *Puritan Reformed Journal* (2010), 78.

고 불리는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 1558-1602)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퍼킨스는 알미니우스와 논쟁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개혁파 입장을 변증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과는 반대로 허용이라는 개념을 자유롭게 사용하였다. 따라서 허용에 대한 퍼킨스의 강조는 엄격한 인과율적 패턴으로부터 떠나게 되었고 칼빈의 엄정한 정의로부터도 거리를 두게 되었다.[4] 이와 같은 차이는 소위 "칼빈과 칼빈주의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된다.[5] 과연 퍼킨스 같은 개혁파 신학자들은 칼빈의 신학을 떠난 것인가 아니면 칼빈의 신학을 발전시킨 것인가? 본 논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죄의 허용과 관련된 논의를 중심으로 찾아보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II. 죄의 허용에 있어서 칼빈 신학의 몇 가지 특징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죄의 허용을 칼빈이 강하게 반대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6] 칼빈은 하나님께서 죄를 단지 허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작정하시거나 의도하셨다고(willed) 분명하게 말했다. "인간이 잘못되거나 부당하게 저지른 어떤 행동이라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바르고 정당한 사역이다."[7] 칼빈에 따르면 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를 실현시키는 적극적인 도구이며 죄의 허용이라는 개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는 결과를

---

4 Richard A. Muller, *Christ and the Decree: Christology and Predestination in Reformed Theology from Calvin to Perkins* (Durham: Labyrinth Press, 1986), 164.

5 칼빈과 칼빈주의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는 다음 연구서를 참조하라. Richard Muller, *After Calvin: Studies in the Development of a Theological Tra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63-102. 제1부, 4장과 5장: "Calvin and the "Calvinists": Assessing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between the Reformation and Orthodoxy."

6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trans. F. L.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0), I. xviii.1 and III. xxiii. 8. 또한 Calvin, *A Defense of the Secret Providence of God* in Calvin's Calvinism, trans. Henry Cole (Grand Rapids: Eerdmans, 1950). 이후로 후자는 "*A Defenses of the Secret Providence*"으로 표기함. 이 책은 아쉽게도 칼빈의 예정론을 다룰 때 종종 무시되는 경향이 있는데 칼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강요』와 『변증』을 같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7 Calvin, *A Defense of the Secret Providence of God*, 169.

초래하게 된다.

탁월한 성경 주석가였던 칼빈은 성경에서 신적 허용을 보여 주는 몇몇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일주일 중 6일을 인간에게 맡겼고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이혼을 허용하셨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허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스런 섭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칼빈은 강조하였다.[8] 따라서 칼빈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사용된 용어 자체가 아니라 그 용어가 표현하려고 하는 실체이다. 칼빈은 자신의 대적들에게 핵심적 이슈가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만약 허용이란 용어가 당신들에게 그토록 만족과 기쁨을 준다면, 이 질문에 대답하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때 기꺼이(willingly) 그렇게 하시는가, 아니면 마지못해(unwillingly)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하신다는 것은 시편 115편 3절에 의해 부정된다. "주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꺼이 허용하시는데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단지 무관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관중으로 표현하는 것은 완전히 불경한 행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가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신의 지혜에 따라 결정하시고 다스린다고 해야 한다.[9]

이와 같이 칼빈은 허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칼빈이 허용이라는 용어 자체를 절대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허용적 의지는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통치와 동의적인 표현이었다.[10] 그가 반대한 것은 허용이라는 단어가 줄 수 있는 잠정적인 오해였다. 아쉽게도 칼빈은 허용적 의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단순한 설명에 만족하며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칼빈의 섭리 교리에 있어서 허용의 어떤 요소가 자리 잡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는 점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

8 Calvin, *A Defense of the Secret Providence of God*, 290-291.
9 Calvin, *A Defenses of the Secret Providence of God*, 295.
10 Calvin, *A Defenses of the Secret Providence of God*, 290.

칼빈이 허용을 거부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의지를 죄의 사건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칼빈은 이 허용을 종종 "단순한 허용(mere permission)"이라고 불렀다. 즉 칼빈이 허용을 반대했을 때 그 허용은 하나님의 의지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허용을 의미하였다.[11] 칼빈은 의지와 허용이 서로 양립될 수 없다고 보았으며 또한 이후에 개혁파 신학에서 발전하게 될 "허용적 의지(permissive will)"와 "실행적 의지(operative will)"의 구분도 발전시키지 않았다. 이와 같은 구분들은 칼빈 이후의 신학에서 본격적으로 시도되었으며 우리는 그것들을 윌리엄 퍼킨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III. 죄의 허용에 대한 퍼킨스의 견해

1. 예정: 선택과 유기

엘리자베스 통치 기간 중 청교도 신학의 기틀을 놓았던 윌리엄 퍼킨스[12]는 칼빈의 신학이 영국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는지를 잘 보여 준다. 특히 그의 대표작인 『황금사슬』(*Golden Chain*)[13]은 16세기 말 영국 교회에서 칼빈주의적인 예정론이 매우 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증거한다. 죄의 허용이 예정론의 카테고리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죄의 허용에 대한 퍼킨스의 견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예정론을 먼저 다룰 필요가 있다. 퍼킨스에

---

11 Calvin, *A Defenses of the Secret Providence of God*, 202.

12 윌리엄 퍼킨스의 삶과 신학에 대해서는 다음의 최근 연구서를 참조하라. W. B. Patterson, *William Perkins & the Making of a Protestant Engl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퍼킨스는 기본적으로 신학적인 면에 있어서 그 당시 칼빈주의 입장을 강하게 띠고 있었던 잉글랜드 교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퍼킨스에 대한 보다 최근 연구서로는 다음 저서를 참조하라. Joel R. Beeke & Greg Salazar 편, *William Perkins: Architect of Puritanism* (Grand Rapids: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19).

13 소위 구원의 서정(*ordo salutis*)을 다룬 이 책은 퍼킨스를 비롯한 후기 칼빈주의자들이 예정론을 중심교리로 삼아 사변적 신학을 추구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구원의 서정이라는 표현 자체가 훨씬 더 이후에 사용되었으며 소위 구원의 서정과 관련된 논의들은 철저하게 로마서 8:28-30절에 대한 성경해석에 근거하였다. Richard Muller, *Calvin and the Reformed Tradition: On the Work of Christ and the Order of Salvati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s, 2012), 201.

따르면 예정은 인간의 마지막 상태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협정(council)을 의미하는데 이 예정은 선택과 유기로 구성된다.[14] 칼빈과 마찬가지로 퍼킨스는 명백하게 이중예정의 전통에 서 있다.

퍼킨스는 먼저 선택을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설명한다. 하나님의 선택은 두 개의 사역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호의와 사랑에 이르도록 창조될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간과하시는 행위이다."[15] 두 번째 행위는 "구원과 은혜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타락될 바로 그 사람들을 정하거나 구분하셔서 구원과 천상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행위"이다.[16] 그런데 이 두 번째 행위에는 다섯 개의 단계가 있다. 1) 중보자를 정하심, 2) 중보자가 임직받음을 약속하심, 3) 그가 임직 받음을 증거하심(exhibiting), 4) 증거받은 그리스도를 적용하심(application), 5) 그 적용의 성취(accomplishment).[17] 이 모든 하나님의 선택적 행위에서 인간에게 어떤 원인을 돌릴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 첫째 행위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기쁘심만이 선택의 유일한 원인이고, 둘째 행위에서도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만이 선택의 유일한 원인이시다.

퍼킨스는 이어서 유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며 이것에 의하여 그분은 초자연적인 은혜에 관하여 어떤 사람들을 간과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목적은 그들의 합당한 멸망 속에서 자신의 의와 진노를 나타내

---

14 Perkins, *A Christian Plaine Treatise of the Manner and Order of Predestination and of the Largenes of Gods Grace, in The Workes of that Famous and Worthie Minister of Christ in the University of Cambridge* (Cambridge, 1608-9), vol. II, 689, 1a. 이후부터 "*A Treatise of the Manner and Order of Predestination*"로 표기함. 퍼킨스의 전집은 매우 큰 책으로 출간되었기 때문에 한 페이지마다 두 개의 칼럼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칼럼은 a, b, c, d로 표기되어 있다. 퍼킨스의 저작들은 그의 사후에 전집으로 편집되어 여러 차례 다른 버전으로 출간되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1608-9년 판을 사용함) 최근에는 헤리티지 출판사(Reformed Heritage Books)가 현대판으로 재편집하여 출간하고 있는 중에 있다. 완간이 되면 퍼킨스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된다.

15 Perkins, *A Treatise of the Manner and Order of Predestination*, 691, 1c.

16 Perkins, *A Treatise of the Manner and Order of Predestination*, 691, 1d. 퍼킨스는 전택설의 입장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 Perkins, *A Treatise of the Manner and Order of Predestination*, 692, 1a. 퍼킨스의 구분에서 우리는 퍼킨스의 예정론이 단순히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기독론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Cf. Muller, *Calvin and the Reformed Tradition*, 198.

기 위함이다."[18] 선택과 마찬가지로 유기 역시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어떤 사람을 버리시는 작정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을 징벌하시는 작정이다. 그런데 선택과는 달리 유기에서는 작정의 원인에 있어서 차이를 가진다. 전자는 하나님의 선한 기쁨에서 나오며 인간의 죄와 어떤 관련도 없다.[19] 따라서 "죄는 유기 작정의 원인이 아니고 순서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지(foreknowledge)에 앞선다."[20] 반면에 유기의 두 번째 측면은 원죄나 자범죄와 무관하지 않다. 이 경우에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어떤 사람을 버리시지만, 그들을 벌하실 때에는 그들의 죄에 근거하여 그렇게 하신다. 따라서 유기의 첫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유기의 원인이지만, 유기의 둘째 단계에서는 인간의 죄가 유기의 원인이다. 퍼킨스가 "아담의 행위가 하나님의 허용과 버림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 두 번째 카테고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21]

칼빈의 신학적 입장과 마찬가지로 퍼킨스는 예지 예정의 개념을 단호하게 거부하였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유기된 자들의 죄를 다 미리 알고 계시지만 그들을 유기하는 이유는 그들의 죄를 미리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유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그것의 원인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미리 알았고 그것을 막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락의 원인이 되지는 않으신다. 퍼킨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사람의 경우에 다음과 같은 규칙은 일반적으로 진리이다. 어떤 악을 미리 본 사람이 그것을 막지 않았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은 그 일의 행위자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첫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법의 선고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법들 위에 계시고 그것들에게 매이지 않으신다. 그 분은 절대적인 주님이시고 법의 수여자이시다. 그러므로 그의

---

18 Perkins, *A Treatise of the Manner and Order of Predestination*, 694, 1d.
19 Perkins, *A Treatise of the Manner and Order of Predestination*, 694, 2a.
20 Perkins, *A Treatise of the Manner and Order of Predestination*, 694, 2d.
21 Perkins, *A Treatise of the Manner and Order of Predestination*, 695, 1a-b. Cf. Richard A. Muller, *Christ and Decree*, 167.

> 행위들은 도덕법의 범위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분은 인간의 결함을 미리 보았지만 그것을 막지 않은 것에 대한 모든 비난으로부터 자유롭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악을 허용할 만한 선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22]

퍼킨스에 따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신이 제정하신 도덕법에 매이지 않으신다. 따라서 악을 미리 예방하지 않는 자가 그 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이 하나님께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모든 법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기에 대한 선한 이유는 무엇인가? 퍼킨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인간에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유기에는 어떤 선한 이유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숨겨졌다. 퍼킨스의 논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의지와 지식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지식은 의지에 앞선다. 인간은 의지가 없이 어떤 것을 행할 수 없고, 사전 지식 없이 어떤 것을 의도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예지도 본성적으로는 의지에 앞선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서"[23] 그러하다.

인간의 예지와 하나님의 예지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지식과 그의 본성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알게 되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퍼킨스에 따르면 신적 본성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혜, 의지, 전능. 하나님의 지혜는 예지와 협정(counsel)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본성에 속하면서 또한 지혜의 한 부분이다. 퍼킨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신적인 지혜 또는 지식 때문에 하나님은 사물 자체로부터 추론된 어떤 개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본성에 의해서, 연속적이거나 이성의 연역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번의 영원하고 불변한 이해 행위에 의해서 자기 자신뿐만

---

22 Perkins, *An Exposition of the Symbole or Creede of the Apostles*, 163, 2d.

23 Perkins, *Golden Chain: Or, the Description of Theologie, Containing the Order of the Causes of Saluation and Damnation, according to Gods Word*, in *Workes*, vol. I. 15, 2b. 이후로 "*Golden Chaine*"으로 표기함.

아니라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다른 모든 사물들을 분명하고 완전하게 아신다.[24]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신적 예지에 적용시키면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사건을 자신의 본성으로부터 직접 아신다는 것이 분명해 진다. 만물은 이미 하나님의 지혜 안에 이미 정해져 있고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을 미리 보신다. 그 결과 미래의 일은 신적인 지식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퍼킨스는 하나님의 예지를 예준(豫准, fore-approval)이라고 하였다. 퍼킨스는 "안다"는 말이 하나님께 적용될 때, 시편 1장 6편이 말하듯이 그 의미는 종종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신다는 뜻이라고 주장하였다.[25]

2. 죄의 허용

예정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마친 후에 퍼킨스는 죄의 허용문제를 다룬다. 칼빈과 달리 퍼킨스가 허용이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에게서 죄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함이었다. 퍼킨스에 있어서 창조와 타락은 하나님의 이중 예정을 실현시키는 수단이다. 하나님은 죄의 허용을 통하여 "공의롭게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타락하도록 허락하신다."[26] 퍼킨스에 따르면 이 부분에서 타락과 허용을 세밀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허용은 작정 그 자체의 한 수단이고, 타락은 그 작정을 성취하는 수단, 즉 악으로부터 선을 끌어내는 하나님의 정하심이다."[27] 죄의 허용에 대한 퍼킨스의 정의에서 우리가

---

24 Perkins, *Golden Chaine*, 12, 1c.

25 Perkins, *A Treatise of the Manner and Order of Predestination*, 690, 2c. 한글 성경의 시편 1편 6절에는 "인정하시나"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 당시 영어성경에는 "아시나"로 번역되었다. (For the Lord knoweth the way of the righteous, and the way of the wicked shall perish.) 아직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퍼킨스는 제네바 성경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두 번역 모두 시편 1편 6절을 번역함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시편 1편 6절의 언급은 퍼킨스가 자신의 예정론을 입증함에 있어서 얼마나 성경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26 Perkins, *A Treatise of the Manner and Order of Predestination*, 689, 1c. (이탤릭체 첨가)

27 Perkins, *An Exposition of the Symbole or Creede of the Apostles*, 163, 1a-c.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허용은 하나님의 작정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이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작정이 없는 허용은 전혀 허용이 아니다. 그 결과 퍼킨스의 예정론 속에는 칼빈이 말한 "단순한 허용"이 설 자리는 없다. 칼빈이 단순한 허용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듯이 퍼킨스도 이 점에는 동일한 입장을 취하였다.[28]

퍼킨스에 따르면 허용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악인들의 의지를 6개의 행위를 통하여 다스리신다. 퍼킨스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는 허용인데 하나님께서 악인의 의지로부터 은혜를 거두시고 피조물에 맡기는 것이다. 지성에 조명도 하지 않고 의지를 북돋지도 않고 그 자체에 맡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이 야생동물들을 내버려 두는 것과 같다. 둘째는 사탄에 의지를 넘겨주는 것이다.… 셋째는 의지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을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멈추는 것이다. 넷째는 악한 의지를 꺾으시고 움직이시고 조정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인간 의지의 사악함을 잘 이용하여 본성과 반대로 선한 목적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심지어 뛰어난 의사도 종종 독을 사용하여 치료하기도 한다. 마지막 행위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악함에 따라 나아 갈 때 놀라운 자비에 따라 그를 돌이켜서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신다.[29]

여기에서 우리는 퍼킨스가 말하는 허용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개념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허용은 무관심이나 "단순 허용"이다. 아니다. 퍼킨스에 있어서 허용은 하나님이 악인의 의지를 다스리실 때 사용하는 여섯 가지 방식 중에 하나이다. 이 허용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 허용의 긍정적인 면은 악인의 의지로부터 은혜를 거두시는 것이고, 부정적인 면은 악인의 지성에 조명도 하지 않으시고 의지를 북돋지도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실체는 하나이다. 은혜를 주지 않으시는 것은 곧 은혜를 거두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허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

28 Perkins, *An Exposition of the Symbole or Creede of the Apostles*, 163, 2d

29 Perkins, *A Treatise of Gods Free Grace and Mans Free Will*, 721, 1d-2d. Cf. *A Treatise of Manner and Order of Predestination*, 702, 2b-c.

정하신바 되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악인의 의지를 다스리신다.

허용을 적극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퍼킨스는 종종 "실행적 허용(operative permiss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것은 특별한 허용인데 이 허용에 의하여 하나님은 "그것이 악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일이 다른 것(행위 주체)에 속하도록 허용하시지만, 그것이 선이라는 점에서 하나님 자신이 효과적으로 그 일을 행하신다."[30]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허용적 작정은 하나님의 작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작정의 시행에 속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작정 그 자체에 대해서 언급할 때 퍼킨스는 "하나님은 가장 공의롭게 악한자의 악한 의지를 작정하시는데 왜냐하면 그가 그것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셨다면 그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31] 라고 말한다. 하지만 작정의 시행에 대해서는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작정의 시행은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하나님의 실행(operation)과 실행적 작정. 하나님의 실행에 따라 모든 것은 효과적으로(effectually) 발생한다. 하지만 악은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난다. 악은 그 자체로 악으로 볼 수도 있고 궁극적인 관점에서 선으로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악을 선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악의 발생은 "실행적 허용"이 된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악으로서의 악을 실행하시지 않으신다.

실행적 허용을 설명할 때 퍼킨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개념인 "질료(matter)와 형상(form)"을 사용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퍼킨스는 성경에 충실한 성경학자였지만 그 당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자유롭게 사용하였다.[32] 어떤 자질(quality)이나 행위(action)를 의미하는 질료로서의 죄는 선하지만, "불법 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형상으로서의 죄는 악이다.[33] 그렇게 되면 동일한 일이 동시에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

30 Perkins, *Golden Chaine*, 16, 1a.
31 Perkins, *Golden Chaine*, 15, 2a.
32 퍼킨스에 있어서 "오직 성경"의 원리는 이성이나 학문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 Leif Dixon, Practical *Predestinarians in England, c. 1590-1640* (London & New York: Routeledge, 2014), 103.
33 Perkins, *An Exposition of the Symbole or Creede of the Apostles, According to the Tenour of the Scripture, and the Consent of Orthodoxe Fathers of the Church*, Workes I, 158, 2d - 159, 1a.

수도 있다. "우리는 인간이 행한 악과 그 인간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행한 선을 구별해야 한다"고 퍼킨스는 주장하였다.[34] 더 나아가 퍼킨스는 "죄 자체와 그 죄의 허용을 구별해야 하고, 유기의 작정과 실제 심판을 구별해야 하며, 죄 자체가 아니라 죄의 허용이 유기 작정의 수단에 속한다"고 강조하였다.[35]

3. 하나님의 의지

지금까지 살폈지만 하나님의 허용은 일종의 의지이고 단지 어떤 일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퍼킨스는 칼빈이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을 의도하셨고 허용을 그의 의지와 동일시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36] 칼빈은 허용을 의지와 동일시하는 것에서 만족하였지만 퍼킨스는 허용이 왜 의지가 될 수 있는지 규명하는데 관심이 있었다. "만약 우리가 의지의 순서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일차적으로 죄를 막거나 제어하지 않으시고 그 이후에 죄가 발생하도록 의도하셨다"고 퍼킨스는 말한다. 퍼킨스에 있어서 허용은 "막지 않는 의지(will not to hinder)"로 규정될 수 있다. 퍼킨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막지 않으시는 이유는 1) 그렇게 되기를 의도하시거나, 2) 그렇게 안 되기를 의도하시거나(he doth vtterly nill that it should be done), 3) 그렇게 되기를 의도하시지 않거나 (he doth not will it should be done), 4) 또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시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37]

---

34 Perkins, *An Exposition of the Symbole or Creede of the Apostles*, 160, 1a

35 Perkins, *An Exposition of the Symbole or Creede of the Apostles*, 294, 1c.

36 퍼킨스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뿐만 아니라 그의 성경주석도 잘 알고 있었다. 칼빈을 직접 인용하면서 퍼킨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의도하셨다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이들은 종종 불쾌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묻겠다. 막지 않을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을 자신의 능력 안에 두시는 그의 허용이 의지가 아니면 무엇이라는 말인가?" Perkins, *A Treatise of the Manner and Order of Predestination*, 698, 2d - 699, 1a. 또한 701, 1a-b. 이것은 칼빈의 창세기 3장 1절에 대한 주석에서 인용한 것이다.

37 Perkins, *A Treatise of the Manner and Order of Predestination*, 699, 1a.

퍼킨스는 두 번째 가능성은 논리적으로 틀렸기 때문에, 셋째는 피터 롬바르드(Peter Lombard)나 스콜라주의자의 견해에 속하고 넷째는 에피큐러스주의이기 때문에 거부하고 첫째를 선호한다. 여기서 우리는 의도(will)와 반대의도(nill)를 잘 구분해야 둘째와 셋째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반대의도는 단순히 어떤 것을 의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어떤 것이 일어나지 않기를 의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퍼킨스의 관점에 따르면 롬바르드의 주해라고 할 수 있는 중세 스콜라 신학은 에피큐러스주의와 별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에 관한 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위는 없고, 즉 원하시거나 안 원하시지 않고 단지 그것을 막기를 원하지 않는 부정적 행위만"을 말하면서 이 세상에 일어난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제외시켜버렸기 때문이다.[38]

(1) 하나님의 셋째 의지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을 의도하셨다고 말하면서도 퍼킨스나 칼빈은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라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였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퍼킨스는 하나님의 의지를 3가지 행위로 구분한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어떤 것을 의도하시는 것이고, 둘째는 절대적으로 혹은 전적으로 어떤 것을 하지 않기를 의도하시는 것이고, 셋째는 앞의 두 가지 중간에 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혹은 부분적으로 어떤 것을 의도하시기도 하시면서 반대를 의도하시는 행위"이다.[39] 죄의 허용의 가능성은 세 번째 신적인 의지행위에 기초해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퍼킨스의 견해가 롬바르드를 따르는 스콜라주의자들의 견해와 완전히 반대라는 사실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허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고 안 원하시지도 않는 것이라면, 퍼킨스에 있어서 허용은 원하시면도 안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퍼킨스에 있어서 허용은 하나님의 두 의지의 종합이며 이 점에서 하나님의 "세 번째 의지"[40]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셋째

38 Perkins, *A Treatise of the Manner and Order of Predestination*, 699, 1b-c.
39 Perkins, *An Exposition of the Symbole or Creede of the Apostles*, 300, 1b-d.
40 이 의지는 스페인의 예수회 신학자인 몰리나(Luis de Molina, 1535-1600)가 주장한 중간지식(*scientia media*)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야 한다. 몰리나에 따르면, 이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 중 필연적 지식(*scientia necessaria*)과 의지적 지식(*scientia voluntaria*)과 구분되는 제3의 지식으로 미래에 일어날 수많은 가능성에 대한 지식이다.

의지에 대해서 퍼킨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이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은 악으로서의 악을 인정하지 않으시며 따라서 그것을 행하지도 않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이 다른 것에 의하여 일어나거나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의도하시는데 왜냐하면 악을 허용하기를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악이 있어야 하는 것이 선하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방식도 아닌 이 방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을 의도하였다. 그러므로 아무 편견이 없이 판단해 볼 때 하나님은 타락을 작정하셨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하나님은 자유로우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그 행위자에 있다.[41]

퍼킨스에 따르면, 한편으로 볼 때 하나님은 죄를 의도하셨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반대를 의도하셨다. 죄는 이 두 하나님의 의지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셋째 의지로 구분될 수 있다.

(2) 특별의지와 일반의지

하나님의 셋째 의지에 대한 퍼킨스의 견해는 하나님의 특별의지와 일반의지의 구분을 통해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42] 특별의지는 이렇게 규정된다. “이 의지에 의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인정하고 또한 야기하신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며 그것에 의하여 하나님은 기뻐하는 가운데 그것을 단순히 의도하셔서 그것을 행하시시고 또한 인정하신다.”[43] 이와 반대로 “일반적 의지에 의하여 하나님은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기를 원하시지만 그것들을 막지

---

41 Perkins, *An Exposition of the Symbole or Creede of the Apostles*, 300, 1c.

42 일반적으로 일반의지와 특별의지의 구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면서도 (딤전 2:4) 오직 일부만 구원을 받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따라서 퍼킨스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일반/특별 의지의 구분과 전혀 관계가 없다. Cf. Patrick Riley, *The General Will Before Rousseau: The Transformation of the Divine into the Civic*, (Princeton, 1986), 4ff. 하지만 퍼킨스는 일반/특별 섭리를 구분하여 하나님의 두 구원방식을 설명하였다. Cf. Perkins, *An Exposition of the Symbole or Creede of the Apostles*, 160, 1d.

43 Perkins, *A Treatise of the Manner and Order of Predestination*, 697, 2d.

않으시기를 원하셔서 결과적으로 그가 단순히 인정하지 않으셨던 것들이 발생하도록 의도하신다."[44]

퍼킨스의 구분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의지의 구분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퍼킨스에 있어서 일반의지와 특별의지는 포함 관계 속에 있지 않다. 특별의지와 일반의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인정의 유무이다. 하나님의 인정을 포함하는 의지는 특별의지이고, 하나님의 의지를 포함하지 않으면 일반의지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이 인정하지 않은 타락이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을 퍼킨스는 논증하려고 하였다.

(3) 비밀스런 의지(secret will)와 나타난 의지(signifying will)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을 의도하셨다고 했을 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금령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했다면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담은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렇다면 선악과는 하나님의 의지에 반하여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것을 하나님의 허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여기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의지와의 관계이다. 퍼킨스는 이 둘이 서로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하나님의 의지를 비밀스런 의지 또는 하나님의 선한 기쁨과 나타난 혹은 계시된 의지로 구분하였다.[45] 아담의 죄는 나타난 뜻이 아니라 비밀스런 의지에 따라 발생하였다고 퍼킨스는 주장하였다.

하나님의 비밀스런 의지는 퍼킨스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이 의지는 모든 것을 보시고 야기하시는 하나님의 협정에 따른 하나님의 작정이다. 2. 이 의지 안에는 절대 주권적 능력이 있다. 3. 이 의지는 예외 없이 모든 만물의 일차 원인이시다. 4. 이 의지는 우리에게서 숨겨져 있으며

---

44 Perkins, *A Treatise of the Manner and Order of Predestination*, 698, 1a.

45 이 구분은 신명기 29장 29절에 근거하고 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지와 계시된 하나님의 의지의 구분은 개혁신학에 있어서 매우 탁월한 관점으로 이해되었다. Cf. Curt Daniel, *The History and Theology of Calvinism* (Springfield: Good Books, 2003), 203.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준칙이 될 수 없다.[46]

비밀스런 지식을 정의한 다음 퍼킨스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나타난 의지를 설명한다.

> 하나님의 나타난 의지는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일부 계시하실 때 피조물의 선함을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공의와 자비를 나타내는데 봉사하는데 사용된다. 이 나타난 의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기쁜 의지와 달리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지라고 할 수 없다. 분한 감정이 없는 분노의 결과들만이 하나님의 분노라고 불리는 것처럼, 그의 뜻의 나타남이나 표지가 의지라고 불릴 수 있다.[47]

퍼킨스에 따르면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분노는 인간적인 분한 감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분노라고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타난 의지도 의지의 표현이지 의지 그 자체는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를 어떤 때에는 분명하게 어떤 때에는 희미하게 나타내신다. 그의 말씀, 그의 허용, 그의 시행은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세 가지 수단이다. 그러나 순종이나 시험이나 책망을 위한 자신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숨기실 때 하나님의 의지는 희미하게 표현된다. 여기에 대해서 퍼킨스는 3가지 예를 제시한다. 첫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을 때(창 22:2)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둘째,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을 때 순종의 가능성을 숨기신다. 셋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넘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나 나중에 넘긴 경우에 책망을 위한 자신의 목적을 숨기신다.[48] 이와 같은 숨김 때문에 나타난 의지와 비밀스런 의지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아담의 타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의 비밀스런 의지는 우리에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나타난 의지에서 논의를 시작해야만 한다. 하나님

---

46 Perkins, *A Treatise of Gods Free Grace and Mans Free Will*, 704, 2b - 705, 2c.
47 Perkins, *A Treatise of Gods Free Grace and Mans Free Will*, 705, 2d.
48 Perkins, *A Treatise of Gods Free Grace and Mans Free Will*, 705, 2d - 707, 1b.

의 나타난 의지는 아주 분명하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지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세상에 일어난 다른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아담의 범죄도 모든 만물의 제일 원인이 되시고 절대적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비밀스런 의지에 따라 일어났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 속에 하나님께서 순종의 가능성을 숨기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아담은 하나님의 비밀스런 의지에 따라 희미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비밀스런 의지와 나타난 의지의 구분은 조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오해하면 마치 하나님에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의지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차이를 조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문제에 관하여 퍼킨스는 더 이상의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이 둘이 구분되지만 하나의 의지라고 설명하는 것에서 만족한다. 이 점에서 퍼킨스는 "이 심오한 비밀을 무작정 파고드는 것은 성급하고 오만하고 정신없는 행동"라는 칼빈의 경고를 따르고 있다.[49] 칼빈과 마찬가지로 퍼킨스 역시 성경이 가르치는 범위 안에서 머물기를 원하였다. 이와 반대로 퍼킨스의 반대자들은 허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의지를 분리시키고 말았다.

(4) 의지와 자유

퍼킨스를 비롯한 개혁파 신학자들은 17세기에 들어와서 알미니우스주의자들에게 "인간에게서 자유의지를 박탈하고 인간의 책임을 말소하였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50] 물론 개혁파 신학자들 중 어느 누구도 제2 원인으로서의 자유의지가 지니는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 않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제거하지도 않았다. 퍼킨스에게 있어서도 자유의지는 죄의 작정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의지는 "지성에 의존하여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거나,

---

49 Calvin, *A Defense of the Secret Providence of God*, 294.

50 Richard A. Muller, "The Grace, Election and Contingent Choice: Arminius's Gambit and the Reformed Response," in *The Grace of God and the Bondage of the Will*, ed. Thomas R. Schreiner and Bruce A. Ware (Grand Rapids: Erdmans, 1995), 251.

선택하거나, 거부하거나 유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51] 퍼킨스에 따르면 의지의 능력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다. 하나는 가부의 선택(contradiction)이고 다른 하나는 다중 선택(contrariety)이다. 첫째는 동일한 것을 원하거나 안 원하는 능력이고, 둘째는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능력이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항상 땅으로 떨어지는 돌이나 이리로부터 항상 도망치는 양과 달리 의지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은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하지는 않는다.[52]

퍼킨스에 따르면 의지는 지성에 의존한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본성과 동일하지만 인간의 의지는 인간의 본성과 다르다. 또한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동일하지만 인간의 의지는 그렇지 않다. "하고자 하는 것이 내게 있으나 하고자 하는 그것을 내가 할 수 없도다"(롬 7:18)."[53] 이것은 인간의 타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아담의 가변성에서 기인하는 타락의 가능성은 견인의 은혜에 따라 결정된다. 아담은 하고자 하였다면 영원토록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아담의 의지는 그의 지성에 따라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의지는 의지와 구별되는 지성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지 자체가 지성의 절대적인 규칙이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정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54]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지는 모든 만물의 최고 원인이 된다.

퍼킨스에 있어서 자유는 의지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만약 자유가 없다면 의지는 더 이상 의지라고 불릴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강요나

---

51 Perkins, *A Treatise of Gods Free Grace and Mans Free Will*, 703, 2b. 이 저작은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신학논문이라기 보다는 마태복음 23장 37-38에 대한 주석적 연구이다. 여기서 퍼킨스는 3가지 주제를 다룬다. 1) 반역의 장소와 사람들(예루살렘) 2) 반역의 정도와 행위들 3) 반역의 질료(matter)와 형상(form). 퍼킨스는 사변적 논리가 아니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논문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가장 논란이 되는 구절은 "내가 너희를 모으기를 원하였으나 너희가 거부하였도다"이다.

52 Perkins, *A Treatise of Gods Free Grace and Mans Free Will*, 704, 1c-d.

53 Perkins, *A Treatise of Gods Free Grace and Mans Free Will*, 708 1d.

54 Perkins, *An Exposition of the Symbole or Creede of the Apostles*, 284, 2a.

제약의 자유를 의미하며 모든 필연성들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55] 따라서 필연성은 의지의 자유와 상충하지 않는다. 퍼킨스는 필연성을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절대적 필연성, 폭력에 의한 필연성, 결과적 혹은 불오적(infallible) 필연성. 이 중에서 두 번째가 의지의 자유를 파괴시키는데 "동의(consent)를 말소시키기" 때문이다.[56] 이와 달리 절대적 필연성과 결과적 필연성은 자유를 파괴시키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성자의 발생과 성령의 발출은 전자에 속하는데, 이 경우에 하나님은 지극히 자유롭게 그 일을 행하신다. 세 번째 필연성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나 작정에 따라 기존에 선행하는 것에 필연적으로 뛰 따르게 될 때"[57] 일어나는데 이 역시 자유를 파괴시키지 않는다.

퍼킨스는 의지의 자유를 4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한다. 1) 선만 원하는 자유 2) 악만 원하는 자유 3) 죄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선을 원하는 자유 4) 선이나 악이나 상관없이 선택하는 자유.[58] 첫 번째는 하나님께만 속하고 두 번째는 타락이후 인간에 속하며, 셋째는 중생한 자에게 속하고 넷째는 아담에게 속한다. 따라서 자유란 선택이 아니라 동의에 의해서 성립된다. 하나님은 오직 선만 선택할 수 있고, 타락 이후 인간은 악만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실질적으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퍼킨스는 아담이 자유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구분한다: 자연의 자유과 은혜의 자유. 전자는 원하거나 안 원하는 능력이고, 후자는 "선하게"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능력이다. 전자는 선택 그 자체에 관한 구분이고 후자는 선택의 방식에 따른 구분이다. 타락 이후에 전자는 여전히 남아있고 후자는 완전히 상실되었다.[59] 따라서 오늘날 모든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타락 이후에도 자유의

---

55 Perkins, *A Treatise of Gods Free Grace and Mans Free Will*, 703, 2c.
56 Perkins, *A Treatise of Gods Free Grace and Mans Free Will*, 704, 1b.
57 Perkins, *A Treatise of Gods Free Grace and Mans Free Will*, 704, 1b.
58 Perkins, *An Exposition of the Symbole or Creede of the Apostles*, 163, 1a-c.
59 퍼킨스에 따르면 타락 이후의 인간에 대한 이해가 로마 카톨릭 신학과 개혁파 신학을 나누는 결정적인 기준이다. Cf. Perkins, *A Treatise of Gods Free Grace and Mans Free Will*, 710, 2d.

본질은 그대로 남는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5) 죄에 대한 책임 문제

죄에 대한 책임 문제는 타락과 회심을 비교할 때 보다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허용이 하나님의 의지이지만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죄가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일어나더라도 그 원인은 인간의 자유 의지에 있다. 그러나 자유 의지만으로 충분히 죄의 책임 문제를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는 신자들의 회심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능동적으로 강퍅하게" 하시지만[60] 그 죄의 원인은 되지 않으시는데, 이 강퍅하게 함은 바울의 회심에서 일어난 것과 유사하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변화시키실 때 동의(consent)를 파괴시키지 않고 오히려 동의를 끌어내어 하지 않기를 원하는 의지를 하고자 하는 의지로 변화시킨다.[61]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퍼킨스의 질문은 이것이다. 왜 동일하게 인간의 자유의지가 완벽하게 작용하고 있고 하나님도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왜 타락의 경우에는 그 원인이 인간에게 있고 회심의 경우에는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퍼킨스의 답은 하나님의 이중적 사역이다.[62] 인간은 한 방울의 은혜가 주입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죄를 범하지만 그 은혜가 없다면 인간은 스스로 회심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를 주지 않음으로 죄를 의도하시는 반면, 은혜를 수여함으로 회심을 의도하신다. 퍼킨스는 이 점에서 아주 흥미롭지만 논쟁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책임을 변증한다. 퍼킨스는 아담의 타락(fall)을 집의 붕괴(fall)와 연결시키는데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어떤 집 주인이 바람이 아주 심하게 불 경우에 넘어질 수 있는 집을 건축할 수 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그가 받침대를 설치하지 않으면 집이

60 Perkins, *A Treatise of the Manner and Order of Predestination*, 702, 1c.
61 Perkins, *Commentarie, or, Exposition vpon the fiue first Chapters of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London: University of Cambridge, 1617; reprint), 450.
62 Perkins, *An Exposition of the Symbole or Creede of the Apostles*, 163, 1d.

붕괴될 것이지만 그 붕괴의 원인은 집주인에게 있지 않고 바람에 있다.[63] 마찬가지로 아담의 타락에 대한 책임도 그를 저지하지 않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유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타락을 의도하셨지만 그 타락을 위한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효과적(efficient), 질료적(material), 형상적 원인(formal cause)이 아니다.[64] 하나님은 악한 무엇인가를 인간의 의지에 집어넣으시지 않고 그에게서 단지 어떤 은혜를 거두셨을 뿐이다.

타락과 회심의 차이는 관점의 차이에서도 유래한다. 하나님께서 죄의 원인인가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죄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죄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키는 한에서 선하다. 이 점에서는 심지어 하나님은 죄의 원인이 되신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죄가 악으로 고려되는 한, 하나님은 죄의 원인이 되지 않으신다. 이사야 45장 7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화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느니라"고 말씀하신다. 만약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시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악에 대한 책임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퍼킨스는 유다서 주석에서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다룬다.

> 악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자연적 악은 타락된 본성에서 오는 것인데 아픔, 병, 역병, 그리고 죽음과 같은 것이다. 둘째, 사나운 짐승이나 나무, 식물, 짐승 안에 있는 독과 같은 질료적 악이다.… 셋째, 하나님의 명령이나 도덕법을 위반하는 도덕적 악이다. 이사야 45장 7절과 같이 하나님은 첫째와 둘째 악의 조성자나 원인이 되신다.… 그러나 죄로서의 도덕적 악에 대해서

---

63 Perkins, *A Treatise of the Manner and Order of Predestination*, 689, 2d - 690, 1b. 이 비유는 알미니우스에 의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받았다. 알미니우스는 아담과 달리 집은 자율적이지 않고 철저하게 수동적이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을 집의 붕괴에 비유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보다 자세한 것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라. Jacobus Arminius, *Modest Examination of a Pamphlet, Which That Very Learned Divine, Dr. William Perkins, Published Some Years Ago, On the Mode and Order of Predestination, and On the Amplitude of Divine Grace, in The Works of Arminius*, Vol. III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1), 290-291.

64 Perkins, *A Treatise of the Manner and Order of Predestination*, 701, 2c.

하나님은 결코 그 원인이 되지 않으신다.[65]

악에 대한 세 가지 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변증한 다음 퍼킨스는 자신의 견해에 대한 또 다른 반박을 다룬다. 이 반박은 3단 논법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대전제: 하나님은 모든 사물의 원인이시다. 소전제: 죄는 어떤 사물이다. 결론: 따라서 하나님은 죄의 원인이시다. 여기에 대하여 퍼킨스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입장을 논증한다. "죄는 피조물이 아니라 피조물에 의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것이다. 비록 피조물은 피조물을 창조할 수 없으나 다른 피조물을 파괴시킬 수는 있다."[66]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퍼킨스는 악을 선의 결여로 보는 어거스틴을 전통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따라서 베자와 같이 퍼킨스가 인과론적 신학을 확립하기 위하여 아퀴나스주의자들처럼 악을 선의 결여가 아니라 본질적 존재로 보았다는[67]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퍼킨스에 의하면 죄는 자연적 습성(natural habit)도 아니고 순수한 부정(pure negation)도 아니고 "선의 결핍이나 결여"이다.[68]

따라서 퍼킨스에 있어서 죄는 적극적이거나 실재적인 존재가 아니다. 즉, 죄는 창조된 질료나 형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질료에 있어서 어떤 자질(quality)이고 형상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69] 절대적인 악으로서의 죄는 존재하지 않지만 죄는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죄의 형상은 나쁘다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의 질료는 선하다. 그 질료에 관한 한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라고 할 수 있다.

Ⅳ. 결론

---

65 Perkins, *An Exposition upon the Epistle of Jude*, 494, 2c.
66 Perkins, *An Exposition upon the Epistle of Jude*, 494, 2d.
67 Cf. Lynne Courter Boughton, "Supralapsarianism and the Role of Metaphysics in 16th Century Reformed Theology,"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48 (1986), 87.
68 Perkins, *A Treatise of the Manner and Order of Predestination*, 702, 1b.
69 Perkins, *An Exposition of the Symbole or Creede of the Apostles*, 158, 1d – 159, 1a.

이상에서 본 논문은 죄의 허용에 대한 퍼킨스의 상세한 변증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칼빈은 허용을 거부하고 퍼킨스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칼빈의 후예들에 칼빈의 신학을 왜곡하였다는 신학적 단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어도 이 논문은 죄의 허용에 관한 한, "퍼킨스의 사상은 이전 개혁파 신학의 왜곡이 아니라 개신교 신학의 종합적 출발점에서 나온 긍정적인 결과물"이라는 리차드 멀러(Richard Muller)의 주장과 기본적으로 평행을 이룬다.[70] 겉으로 드러난 사실과는 달리 퍼킨스의 죄의 허용은 칼빈의 섭리 교리를 전혀 왜곡시키지 않았다.

비록 죄의 허용에 대하여 칼빈과 퍼킨스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을 변증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퍼킨스는 칼빈 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허용이 하나님의 의지의 한 형태라는 것을 강하게 변증하였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퍼킨스의 변증이 성경 주석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의 논증은 결코 성경을 떠난 사변적 신학을 추구하지 않았다. 이 점에서도 퍼킨스는 이전 세대의 종교개혁가들의 주석적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퍼킨스는 개혁파적 입장에서 죄의 허용을 변증하면서 이전 세대의 종교개혁가들 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광범위하게, 때로는 아주 비판적으로 스콜라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퍼킨스와 칼빈을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점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스콜라주의적인 변증 방법은 "오직 성경"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성경의 틀을 벗어날 때에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칼빈과 마찬가지로 퍼킨스에 있어서도 스콜라주의나 아리스토텔레스주의와 성경에 대한 철저한 주석은 서로 공존하고 있었다. 물론 그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은 신학적인 충돌이 아니라 발전으로 이해할 수 있다.

---

70 Richard A. Muller, "Perkins' *A Golden Chaine*: Predestinarian System of Schematized *Ordo Salutis,*" *Sixteenth Century Journal* 9 (1978), 81.

[참고문헌]

Arminius, Jacobus. *Modest Examination of a Pamphlet, Which That Very Learned Divine, Dr. William Perkins, Published Some Years Ago, On the Mode and Order of Predestination, and On the Amplitude of Divine Grace*. In *The Works of Arminius*. Vol. III.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1.

Beeke, Joel R. "Calvin on Sovereignty, *Providence, and Predestination,*" *Puritan Reformed Journal* (2010), 77-105.

Beeke, Joel R. & Greg Salazar 편. *William Perkins: Architect of Puritanism*. Grand Rapids: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19.

Boughton, Lynne Courter. "Supralapsarianism and the Role of Metaphysics in 16th Century Reformed Theology."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48 (1986), 63-96.

Calvin, Joh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F. L. Battles 역.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0

Calvin, John. *A Defense of the Secret Providence of God in Calvin's Calvinism*. Henry Cole 역. Grand Rapids: Eerdmans, 1950.

Daniel, Curt. *The History and Theology of Calvinism*. Springfield: Good Books, 2003.

den Boer, William. "'Cum delectu': Jacob Arminius's (1559-1609) Praise for and Critique of Calvin and His Theology." *Church History and Religious Culture* (2011), 73-86.

Dixon, Leif. *Practical Predestinarians in England, c. 1590-1640*. London & New York: Routeledge, 2014.

Muller, Richard A. *Christ and the Decree: Christology and Predestination in Reformed Theology from Calvin to Perkins*. Durham: Labyrinth Press, 1986.

Muller, Richard. *Calvin and the Reformed Tradition: On the Work of Christ and the Order of Salvati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s,

2012.

Muller, Richard A. "Perkins' *A Golden Chaine*: Predestinarian System of Schematized *Ordo Salutis*." In The *Sixteenth Century Journal* 9 (1978), 68- 81.

Muller, Richard A. *After Calvin: Studies in the Development of a Theological Tra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atterson, W. B. *William Perkins & the Making of a Protestant Engl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erkins, William. *A Christian Plaine Treatise of the Manner and Order of Predestination and of the Largenes of Gods Grace. In The workes of that famous and worthie minister of Christ in the University of Cambridge*. Vol. II. Cambridge, 1608-9.

Perkins, William. *An Exposition of the Symbole or Creede of the Apostles*. In *Workes*. Vol. II. Cambrdige, 1608-9.

Perkins, William. *A Golden Chaine: Or, the Description of Theologie, containing the order of the causes of Saluation and Damnation, according to Gods word*. In *Workes*. Vol. I. Cambridge, 1608-9.

Perkins, William. *An Exposition of the Symbole or Creede of the Apostles*. In *Workes*. Vol. II. Cambridge, 1608-9.

Perkins, William. *A Treatise of Gods Free Grace and Mans Free Will*. *Workes*. Vol. II. Cambridge, 1608-9.

Riley, Patrick. *The General Will Before Rousseau: The Transformation of the Divine into the Civic*.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Thomas R. Schreiner and Bruce A. Ware. *The Grace of God and the Bondage of the Will*. Grand Rapids: Erdmans, 1995.

Vorster, Nico. *Created in the Image of God: Understanding God's Relationship with Humanity*. Eugene: Pickwick Publication, 2011.

[Abstract]

William Perkins' Defense for the Reformed Doctrine of the Permission of Sin and the Divine Will

Sung Ho Lee
(Korea Theological Seminary, Associate Professor, Historical Theology)

Unlike John Calvin who firmly opposed the permission of sin, William Perkins, the most eminent English Reformed theologian of the late sixteenth century, defended the concept thoroughly. Perkins has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acceptance of sin within the Reformed theology. This difference gives us the impression that Calvin and Perkins are theologically conflicting. But in more detail, the two have no difference in that sin is caused by the will of God. Perkins only stressed that the acceptance of sin is a special form of God's will. To this end, Perkins made a detailed exegetical commentary and used the Scholasticism and Aristotelian philosophy, which was universally accepted at that time, more freely yet critically than ever before. As a result, Perkins deals with this topic in a much broader and more diverse way than Calvin. By using Scholastic distinctions such as the third will, the secret will and signifying will, the special will and the general will, Perkins emphasized God's will for sin and at the same time removed God from his responsibility for sin. As such, Perkin's theology is very loyal to the previous Reformed theological tradition. It is desirable to understand Perkin's Reformed apologetics as a theological development, not a theological break with previous generations of the Reformation.

Key Words: William Perkins, John Calvin, Free Will, Permission, God's Decree, Providence